

SK인천석유화학 언택트 사회공헌으로 행복 나눔 실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도 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전과 같은 대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올해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을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한 'Hi, Walk Together'(함께 걸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Safety Net) 구축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걸음에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행하던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탈피, 소수의 인원도 일상생활 공간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긴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나눔을 전하고 있다.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나눔 실천

비대면 사회공헌의 첫 시작으로 지난 8월 인천 의료원의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퍼 캔버스 아트' 70점을 전달했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매입한 폐박스를 활용해, 구성원 및 가족봉사단이 각자의 가정에서 캔버스를 직접 제작했다. 의료진에 대한 응원과 동시에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든 홀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홀몸 어르신들이 콩나물, 느타리버섯 등 채소를 집에서 재배하거나 직접 제작한 부채, 에코백 등을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나눔의 행복을 느끼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걷기 기부 캠페인 'Hi, Walk Together' 챌린지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걷기 캠페인 '하이, 워크 투게더'(Hi, Walk Together)도 새롭게 운영 중이다.

'하이 워크 투게더'는 SK인천석유화학 및 참여 기관 임직원들이 생활 속 걷기를 통해 공동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칫 안



1



1 SK인천석유화학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페이퍼 캔버스 작품을 기부했다. 2 온라인 놀이과학 교실 3 인천 서구청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4 인천시 서구노인복지관에 운영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5 SK인천석유화학 전경



3



4



5

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9월에 실시된 1차 캠페인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서부소방서 등 임직원 884명이 참여해 목표 걸음수 1억보를 달성하고, 지역 발달장애인 125명에 2천만원 상당의 실종 예방 팔찌를 전달했다.

2차 캠페인은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4개 기업·기관 구성원 834명이 동참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목표 걸음수 5천만보의 두 배에 가까운 9천800만보를 달성하고, 지역의 화재 취약 계층 500세대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온라인으로 놀며 배우는 '놀이과학 교실'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놀이과학 교실'을 '온라인 놀이과학 교실'로 개편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서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 놀이 키트를 제공했다.

'온라인 놀이과학 교실'은 ▲ 일상 속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영상 콘텐츠 시청 ▲ 제공된 과학 놀이 KIT를 활용한 개별 제작 활동 ▲ 결과물에 대한 온라인 공유로 진행되며 올해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홍옥표 경영혁신실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택트 방식의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행복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